

인간의지와 이데올로기 간의 상충

리바코프의「아르바뜨의 아이들」을 읽고

박형규

고려대 교수·노어노문학

“소련에서 이 소설의 출판은—소련의 일반 독서권을 이 책을 빌려보려는 수천명의 대기자 명단을 가지고 있다—개방화 조치 중 가장 대단한 조치일 것이다. 이 책의 서방세계에서의 출판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약 우리가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 분별력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서로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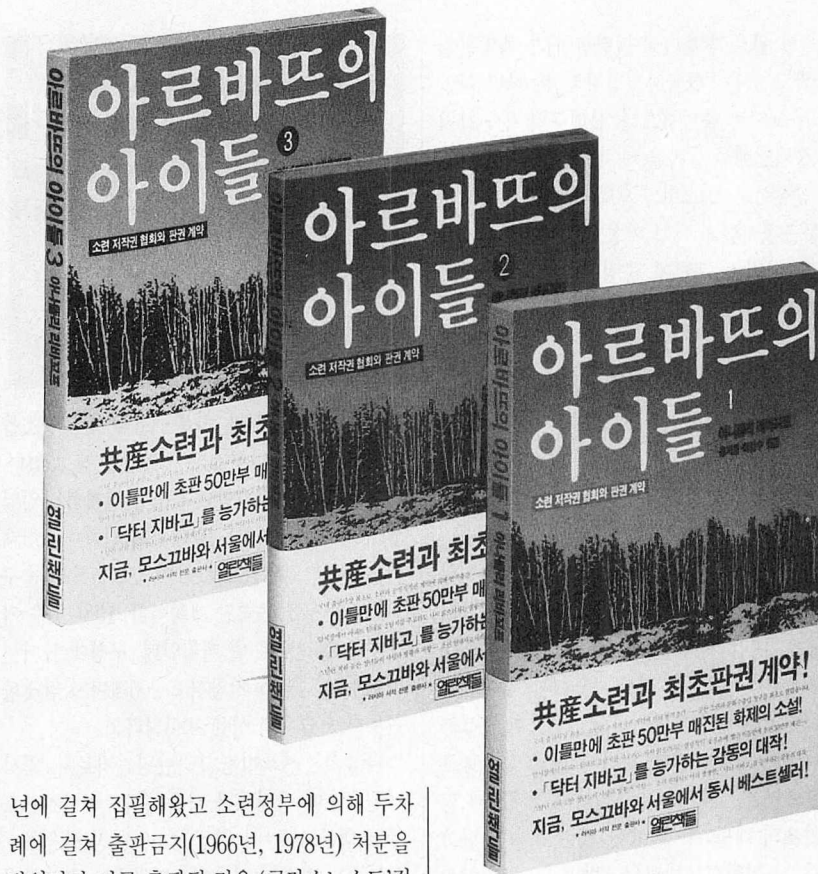
소련의 세계적인 시인인 예브게니 예프투센코가 「아르바뜨의 아이들」이 소련에서 출판되었을 때 발표한 평문의 한 귀절이다.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의 자유화와 개방정책에 편승하여 문학에서의 제2의 ‘해방’을 맞고 있다. 작년 소련당국은 파스테르나크를 공식으로 복권시키고 그의 작품 출간을 허용했으며, 올해에도 망명작가 솔제니친의 작품을 해금하고 「수용소군도」를 제외한 모든 작품의 연재나 출판을 허용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월북작가들의 작품해금에 이어 공산권과의 문화교류를 부분적이나마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산권의 현역작가나 비평가의 작품 소개를 금기시해왔던 문화행정의 경직성에 비추어 볼 때 격세지감이 없지 않다.

문화의 본질은 그 다양성에 있다.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문화는 충분한 자양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문화의 지평은 비로소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문화 이데올로기든 그것이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악용될 때 문화의 제현상에 끼치는 해악은 실로 큰 것이다. 문화가, 이데올로기가 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을 때 굳건한 자생력을 가지게 된다. 문화행정의 경직성은 문화의 파행을 초래할 뿐이다. 소련을 포함한 공산권에 대한 문화 예술의 개방도 이러한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현재의 절름발이식의 편식이 아닌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어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련 현역 중진작가의 ‘해금’ 작품

한국과 소련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하여, 이번에 출간된 「아르바뜨의 아이들」은 소련과 정식으로 저작권 계약을 통해 소개된 작품이라는 점 외에도 몇가지 의의가 있다. 우선 이 소설은 소련의 제2 ‘해방’무드에 때맞춰 출간된 해금소설이라는 점이다. 리바코프가 20여



년에 걸쳐 집필해왔고 소련정부에 의해 두차례에 걸쳐 출판금지(1966년, 1978년) 처분을 받았다가 지금 출판된 것은 ‘글라스노스트’정책의 새로운 양상의 한 증거인 것이다.

둘째, 이 소설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소개된 소련문학 작품들은 솔로호프나 고리끼처럼 작고한 문인들의 작품이거나 솔제니친, 브로드스키처럼 망명작가들의 작품이 주종을 이루어왔으나, 이 작품은 스탈린상(1951년)을 비롯한 국가가 수여하는 많은 상을 수상한 작가동맹의 현역 중진작가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이는 앞으로 여타 공산권 문학작품의 소개에 있어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셋째, 이 소설은 소련에 대한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허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소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소련에 대한 이해는 그저 공산 소련의 ‘잔학성’이나 공포 테러정치, 철저하게 폐쇄된 사회 등으로 일관돼 왔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시각만으로는 소련을 올바르게 볼 수 없다.

19세기 러시아 사회소설의 전통 이어

이 소설의 주인공인 대학신문기자 사샤 뵘끄라코프는, ‘4.19’라는 단어조차 쓰지 못했던 70년대 한국의 대학신문기자와는 달리 동격노동대를 풍자하는 시를 쓰고 당 중앙위원회에서 내려보낸 사설의 게재를 거부하며, 당

위원회에서도 자신의 견해를 당당하게 개진한다. 또 ‘체카’에 의해 수감되어서도 물고문이나 폭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당한 심문을 받으며, 시베리아에서의 유형생활도 중노동과 기아에 시달리는 죄수가 아니라 거주지역만을 제한받는 자연인 그대로의 삶이다. 사샤가 유형지에서 생활하는 동안 모스크바에 남아 있는 대학친구들의 생활도 폐쇄공간에서의 생활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단지 소련에 대한 우리의 무지나 몰이해라는 측면에서일 뿐이다.

「아르바뜨의 아이들」은 문체와 구성에 있어 19세기 러시아 사회소설의 전통 속에서 씌어졌으며, 소련 초창기의 혼란한 와중에서 비교적 조용했던 1930년대 중반을 시대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모스크바의 예술의 거리 아르바뜨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성장하고 생활하는 공산주의 청년동맹(콤소몰)의 회원들인 대학생들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이다. 또 이 소설은 ‘위대한 창조적 시대, 열정의 시대’ 그러나 ‘한편으로는 커다란 비극과 상실의 시대’인 1930년대의 모든 사회계층을 나타내보인 ‘미지의 땅’에 대한 지질학적 단면도라 할 수 있다. 저자 리바코프 자신

이 바로 그 시대의 목격자이며 그의 비상한 기억력은 모스크바의 모든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막다른 길, 그리고 역사를 그대로 재현시키고 있다.

소설이 시작되면서 사샤는 당의 강령을 위배하고 풍자시를 게재했다는 혐의로 제적되며, 재심에 의해 복교가 결정되나 또다시 학교내에 침투되어 있는 지하 반당세력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비밀경찰에 체포되어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진다. 이 소설은 바로 사샤의 인생역정을 통해서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어떻게 상충되는지를 치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시대 가장 중요한 역사소설의 하나”

소설의 후반부는 모스크바에 남아있는 청년동맹 회원들의 생활과 사샤의 시베리아에서의 우여곡절이 리얼하게 펼쳐진다. 그러나 이 소설의 또다른 하나의 축은 스탈린에 대한 생생한 초상이다. 스탈린이 맹목적인 이상화나 아니면 맹목적인 증오 또는 그 두가지를 교묘하게 뒤섞는 태도로 묘사되지 않고, 그 자신의 심리와 성격으로 묘사된 것은 이 책의 처음이다. 정적 게로프나 지노비예프에 대한 政爭에서 보이는 싸늘한 음모가의 면모뿐 아니라, 신경질적인 변덕장이다. 찰리 체플린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감상적인 면모 등이 그렇다.

이 소설의 출판이 소련문단사상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이와같이 스탈린과 1930년대의 모스크바의 생활상이 기막히게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이데올로기적 가치에 대해 재평가를 모색하고 소련의 역사에서 스탈린 시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프린스턴대학의 로버트 터커가 이 소설을 두고 “우리 시대의 러시아에서 발표된 몇 안 되는 정말로 중요한 역사소설 가운데의 하나”이며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에 비견되는 도덕적 깊이를 지닌 소설”이라고 호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의 문학적인 평가와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앞으로 리바코프가 발표하게 될 2부작과 3부작이 완결되는 날이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